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0호 [루게 제23012호] 주제99 (2010)년 3월 1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활동력력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블레전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의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부자가 되어야 한다》를 2월 9일 로씨야의친선 및 협조발전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웨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2월 13일 페루 베. 베출판사에

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력을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기념 쿠웨이트준비위원회와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에서 2월 4일 공동으로 발행하는 블레전에 게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력을 벨라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2월 1일 블레전에 게재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력을 벨루루비위원회가 2월 1일 블레전에 게재하였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력을 페루 김일성주의 연구소에서 2월 11일 블레전에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남녘인민들 열렬히 환영하다

백두의 천출위원을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정기와 환희가 차넘치는 뜻깊은 2월 남조선인민들은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남녘에게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열렬히 호모하며 따르고 있다.

자유기교가 황만옥은 남북공동선언선전대 인내내트롬에게서 울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했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삼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주석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통일운동이 전진할수 있는 길을 사상리론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국방위원장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통해 주석께서 마련하신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들을 집대성하여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었다. 또한 역사적서한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사상리론적무기를 확고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 최진철은 《김정일령수께서는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고 하시며 통일문제해결에서 판관적의의를 가지시는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으로 모든것을 지향시키나 가신다.》고 격찬하시었다.

통일운동가 김수익은 《통일된 메달이 산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령수께서 부잡다란 국제정세와 통일운동의 현황을 심층분석하고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작들은 그 하나하나가 민족의 구성원이

라면 누구나 수용할수 있고 즉각 실천에 옮길수 있는 애국애족의 명언이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학생들에게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남북관계도 풀리고 불길과 대결의 장벽도 무너지게 될것이다. 학생들은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심신을 아끼지 말고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남조선강원도의 김철영학생은 《김정일령도자님이시야말로 진정한 통일자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만 한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온 민족이 조국통일에 굳게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반제민족해방투쟁력사의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한 3.1인민봉기 91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불기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정, 자주성을 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이룩하고 조선 민족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칠 결의를 다짐고 있다.

사설 자주화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자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는 나라의 자주권과 령도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적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속에 발전하였다. 오늘은 3.1인민봉기 91돐이 되는 날이다.

지난 세기 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력사상 류례없는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고 중세적적과소통치를 일삼는 일제에 대한 울분과 원한은 마침내 대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주제 8 (1919)년 3월 1일은 나라 독립이 붕괴에 걸기하여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를 반대하여 과감히 싸웠다. 전국도처에서 남녀로소 가림없이 떨쳐일어나 일제통치기관들을 들부리며 호포를 앞세우고 달려드는 군경들에게 결사적으로 항거하였다.

3.1인민봉기는 조선민족의 결한 반외세자주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고 횡포무도한 일제에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죽음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운 불기자들의 투쟁정신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고무추진하고 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만 한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온 민족이 조국통일에 굳게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었다.

우리 나라 반제민족해방투쟁력사의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한 3.1인민봉기 91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불기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정, 자주성을 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이룩하고 조선 민족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칠 결의를 다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외세력적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올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단합하여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무궁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있다.

지금 미국은 의연히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피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책동과 《제재》, 압력소동을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이친 일만반을 조장하고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그것을 유린하는 외세와 민족반역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강간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하고 공고히 해나갈수 있다.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민족이 반외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통일조국의 창창한 미래는 반외세자주화투쟁에 달려있다. 외세가 남조

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면서 북침행진도발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민족이 반외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필수불가결한것이다.

애국애족의 마음을 지닌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세의 지배주의 정책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민적투쟁에 용감 떨쳐나서야 한다.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견결히 반대배격하며 조선반도의 공화국정부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화해나가야 한다. 호시탐탐 침입의 칼을 버리며 침략력사의 목과 독도감찰, 반공화국, 반공행책동에 미쳐달뛰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책동, 동족대결책동을 끝장내는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민족을 등진 남조선보수당국의 시대착오적인 외세와의 《동맹》강화, 공조책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지지과판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동족대결책동을 지지과판시키는것은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단명한 과제이다.

민족분열영구화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걸음걸음 격파분쇄해 나가야 한다.

남조선보수세력의 반민족적인 대결정책과 허황한 《제재대응》론을 력사의 오물통에 처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의 머리에 준엄한 철주

를 내려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의 기치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령행을 떠나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북남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평화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면서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온 민족의 단합은 외세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으로 굳게 뭉친 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할수 없다. 온 겨레가 사상과 정진,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그 위력으로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의 3자단체를 공고히 하고 민족단합의 대의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부단히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평화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적투쟁위에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민족의 위대한 대양인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모신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은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불패의 애국위업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필승의 오물통에 처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의 머리에 준엄한 철주

공동구호를 받들고 모든 전투장들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4대선행부문 당 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입원들은 강성대국의 대들을 열어내기 위한 최후돌격전 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의 불은 피, 애국의 더운 피가 끓끓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4대선행부문의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제건설사업에 적극참여하는 근로자들과 로동계급의 입부자 매우 중요하다.

철이 사라고 썰어준다.

철이 있어야 우리의 공장, 우리의 상점들에 우리의 경공업제품들이 차넘칠수 있고 또 철이 있어야 비로소 나고 프락트도 나오고 오목백과가 주얼수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섰다.

불꽃이 터지는 전투장들에 나간

당위원회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력사적인 올해 혁명적대고조의 선봉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생산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종업원들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뛰어넘는 결단한 혁명가, 수령적사용위의 전위투사자 되며 배후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당창건 65돐까지 연간 철강재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것으로 령도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올해의 총동원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주체철원련합기업소 비롯한 생산공정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만가들을 보장하며 생필품공정에

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활필수품의 가지수를 늘이도록 하고있다.

성전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지휘로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의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이곳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법전략, 경영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모든 종업원들이 올해 철강재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 10월의 대추진장에 누구나 몇몇몇 단계로 뛰어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은 늘이는데는 오늘 나라의 경제전진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판관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전력공정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도록 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전력생산자들속에 지난해의 초강도강행군의 신들메를 후일 사이다 없이 새해에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 시며 최발전진선진성장을 찾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주면서 전력생산에서 《희천속도》의 불바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공정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전력생산자들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예비기구를 강화해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력수송과 화물수송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철도운수의 물결기술혁명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이렇듯 4대선행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인원들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함으로써 올해의 총공전에서 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최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2.8의 동청년관람을 비롯한 온 나라관망의 박정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철도수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평양철도국, 함흥철도국을 비롯한 철도수송부문의 당조직들을 향하여 집중같이 달려드는 이곳 로동계급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의의 힘있는 파리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어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1월 전투목표를 승리적으로 돌파한 기세드높이 2월 전투에 진입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받들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보다

심신하게 벌려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뜻깊은 2월을 자랑한 철강재생산과로 빛났던 애국총성의 뜨거운 불길은 보장부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판수총사업소, 자동차사업소, 소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신안과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단위들과 개별적인 단부들을 제때에 평가하고 내세워주면서 그들의 증산열의를 부추겨 주었다. 그리하여 강들에서는 막강정세에 맞는 새로운 채탄방법과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등발회수기를 새로 창안도입하여 긴장한 등발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을 부단히 늘여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강동관광과 덕산관광의 일군들과 단부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제때에 찾아내고 소개일반화하면서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덕평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준홍 찍음

신심드높이 석탄생산에서 혁신
강동지구관 광련합기업소에서

명남관광과 흑령관광의 일군들과 단부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명남관광에서는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 탄폭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2갱과 3갱에 굴진력량을 집중하면서 채탄장들을 늘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한데 이어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관광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공동체생산동태활동과 방송선진,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단부들모두가 혁신을



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단부들은 당창건 65돐을 전력적으로 빛내일 한마음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2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단부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수천척 지하막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분투하고 있는 단부들을 로동계급의 핵심부대, 나라의 보배로 굳게 믿고 끝없이 아끼고있으

며 석탄공정부문의 로동계급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총공정전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해나갈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일군들이 편편된 기관, 기업소들의 긴밀한 련계밑에 관광들에서 굴진과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자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주면서 단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심드높이 석탄생산에서 혁신
강동지구관 광련합기업소에서

명남관광과 흑령관광의 일군들과 단부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명남관광에서는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 탄폭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2갱과 3갱에 굴진력량을 집중하면서 채탄장들을 늘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한데 이어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관광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공동체생산동태활동과 방송선진,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단부들모두가 혁신을

신안과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단위들과 개별적인 단부들을 제때에 평가하고 내세워주면서 그들의 증산열의를 부추겨 주었다. 그리하여 강들에서는 막강정세에 맞는 새로운 채탄방법과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등발회수기를 새로 창안도입하여 긴장한 등발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을 부단히 늘여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강동관광과 덕산관광의 일군들과 단부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제때에 찾아내고 소개일반화하면서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덕평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준홍 찍음

신심드높이 석탄생산에서 혁신
강동지구관 광련합기업소에서

명남관광과 흑령관광의 일군들과 단부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명남관광에서는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 탄폭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2갱과 3갱에 굴진력량을 집중하면서 채탄장들을 늘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한데 이어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관광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공동체생산동태활동과 방송선진,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단부들모두가 혁신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자!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생산조직과 지휘

당장전 65백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신심과 열정에 넘쳐 펼쳐나선 신의주방직공장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다. 그들은 지난해 150일전투, 10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줄을 세차게 지켜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올해 첫달과 2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으나 경사로운 2월의 명월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빛내었다. 이 자랑찬 성과에는 공장일군들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일본새가 그대로 비껴있다. 그러면 이 공장 일군들의 기업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생산조직과 지휘로 생산활성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일본새에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애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강행돌파하고 선진시대

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창조해나갈것을 당면한 투쟁목표로 제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웠다.

공장에서는 변이 난 지난해에 메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훨씬 높임으로써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었다.

공장에서는 올해에 또다시 지난해보다 인민경제계획을 1.2배로 높이 세웠다. 로력도 그 로력, 설비도 현재 가지고있는 그 설비들로 올해에 높이 세운 목표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공장당조직의 지도밑에 참모부에서는 여러차례 참모회의와 협의회를 열고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생산을 높이는데 필요한 설비와 로력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

이것이 초점으로 되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아무리 타산을 해보아도 현존설비와 로력으로는 부족한 수가 없다. 판리에게 제기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리철, 고순복, 김창석동무들 비롯한 공장책임일군들의 팀장은 명백하였다.

—올해공동사실에서는 선군시대 일군들의 일본새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

백히 제기하였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중속에 있다. 대중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능동적인 작전을 펼쳐나갈 때 올해생산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

공장일군들은 문제해결의 방향을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발동에서 찾기로 결심하고 일제히 직장, 작업반들에 내려갔다.

참모부일군들은 현장에 깊이 들어가 우선 직장장들과 함께 설비상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리고 교대부직장장들과 수리공들, 설비점검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일군들은 현장에서 설비들의 가동일수는 얼마이며 설비판리를 짜고들면 얼마만 한 능률을 더 낼수 있었는가를 수차례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타산해보았다.

여기에서만도 적지 않은 예비가 나올것으로 타산되었다. 직로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직기기의 가동률을 합리적으로 타산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얼마까지 더 높이는것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이 과정에 애초에 예견하였던 설비대수보다 훨씬 적은 정방기와 직기들만 보충하면 높아진 계획수행에 필요한 설비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타산안이 나왔다.

제기된 설비를 어떻게 보충할것인가?

일군들은 설비보수부문에 공무부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해나갔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는 올해에 우리 방직부문 로동계급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요구를 다 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정으로 가슴 불태우는 방직공들은 올해 또다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펼쳐나갔는데 지금 걸린것이 직기와 정방기이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도는 동무들의 심장속에 있다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수리공, 보수공들이 일군들의 참신한 정치사업에 고무되어 신작기에 일떠섰다.

즉시에 방직준비공정에서 편조기 2개, 계를을 되살려내고 2호호반기와 소면기, 조방기의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수리공, 기술공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달려붙었다.

일군들의 정치사업과 노동에 앞선 동태원들의 힘찬 노래소리, 복소리는 짧은 기간에 설비들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하여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였던 설비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실천

적모범으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강계편직공장 로동계급의 투쟁노선을 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찾았다.

산뜻한 외장제를 칠한 생산건물들과 함께 공장안팎이 모두 환하게 꾸러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꽃피는 영광의 일터에서는 기계들의 동음이 고르롭게 울리고있었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려 1월과 2월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방직공업부문에서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뜨개질 옷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눈덮인 북방의 신선한 산물을 헤치며 몸소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애에 대한 사랑을 안고 높은 생산실적을 이룩해가는 로동자들의 모습이 미덥게 안겨왔다.

우리는 공장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1제직장에서 향하였다.

드넓은 전투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속보들이 나뉘어있었고 대한기들이 기운차게 돌아가고있었다.

직장장 김희옥동무는 선형공정을 맡은 직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기계대동들이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

강계 편 직 공 장 에 서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강계편직공장 로동계급의 투쟁노선을 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찾았다.

산뜻한 외장제를 칠한 생산건물들과 함께 공장안팎이 모두 환하게 꾸러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꽃피는 영광의 일터에서는 기계들의 동음이 고르롭게 울리고있었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려 1월과 2월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방직공업부문에서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뜨개질 옷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눈덮인 북방의 신선한 산물을 헤치며 몸소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애에 대한 사랑을 안고 높은 생산실적을 이룩해가는 로동자들의 모습이 미덥게 안겨왔다.

우리는 공장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1제직장에서 향하였다.

드넓은 전투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속보들이 나뉘어있었고 대한기들이 기운차게 돌아가고있었다.

직장장 김희옥동무는 선형공정을 맡은 직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기계대동들이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

기로 하여 생산자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공장적으로 손꼽히는 기술자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기계대동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는데도 힘을 넣고있었다.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일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생산자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열판리작업반에서는 두층 플랜식보일러를 받아들여 연소효율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 송풍기와 불판을 조절하면서 열판리를 하고있다. 작업반장 김명철동무는 분쇄한 연료가 콘베어에 실려 화실로 자동적으로 공급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대중적기술혁신의 열풍으로 들끓고있는것이 또한 공장의 새 모습이었다.

기차장 김정현동무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날뛴것을 현대화하고 최진식양말염색기를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올해에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당장전 65백까지 지난 인민경제계획을 기어 이 완수하겠습니다.」

자비한 강성화동무의 결의에서 우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을 마중해가려는 이삭 로동계급의 뜨거운 맹세를 읽으며 공장문을 나섰다.

특파기자 공 로 혁

해 산 신 발 공 장 에 서

공동사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해산신발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산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입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원로, 자체모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 해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제화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에서는 작업반장들이 로력조직과 판리를 짜고들이 로동시간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단위당 시간내에 작업능률을 부쩍 올리고있다.

재단종합작업반원들도 서로 돕고 이 끝편서 재단실수물을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높이 생산하고있다.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해

달리는 공로로동자들의 열정넘치는 모습은 1제복직장의 생산현장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곳 재봉공들은 강성대국건설대선의 완전자라는 자각을 안고 증산투쟁을 벌려 매일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인의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보내줄 뜨거운 마음안고 2제복직장의 재봉공들도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기대를 만부하로 돌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4.15기술혁신동력대」와 기술준비실에서는 제화공정과 재단공정에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제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장전 65백을 맞는 올해를 높은 로력적성으로 빛내이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공장에서는 운동화, 편리화들 비롯한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얼마전 우리는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북방직로공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아담하게 꾸러진 생산건물들이 인상 깊게 무르익어 있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 밑에 대고조전군에 나선 식료품생산자들의 투쟁노를 전하는 커다란 속보판들이 눈에 띄어 안겨와 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넣어 맛있게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 가공 1작업반 현장을 찾았다. 구수한 물엿냄새가 물씬 풍겨나오는 현상이었다. 갖가지 랑크들과 절단기 등 적지 않은 식료가공설비들이 규모있게 들어있는 현장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일손을 놀

리고있었다.

작업반장 김금녀동무가 생산공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보기가 좋고 먹음직스러운 강정이 비교적 단순한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 포장되어나오고있었다.

「10월의 경축공장을 자랑찬 로력적성품을 안고 들어서기 위해 작업반원 모두가 성수

넓은 작업장에서는 두개의 호프선이 만가동의 동음을 울려가고있었다. 시원한 박자기름냄새와 향긋하고 세련한 과일냄새가 한데 어울린 현장의 공기는 참으로 청신하였다.

하얀 위생복을 산뜻하게 받쳐입은 기계대동들이 사랑, 파자호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작업반장 김희옥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아 주었다.

그가 혁신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품아가는 사이에 어느덧 사랑과 파자들이 주머니에 차근차근 포장되어 무드기 쌓이고있었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사랑과 파자를 더 많이 생산하자고 정성을 쏟아부는 기계대동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덥었다.

어머니당의 뜻깊은 10월을 행복의 웃음소리로 강산에 넘치는 기쁨과 화회의 10월로 빛내이려는 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없이 돌아가는 사랑, 파자호프선들이 다 말해주는듯싶었다.

정 경 철

방 문 기

창조의 기쁨 넘친다

북방식료가공공장을 찾아서

가 나서 일손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작업반원들의 짙은 일소리를 이속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작업반장이 자랑담아 하는 이야기였다. 10월을 달리는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는 느낄수 있는 대고조전투성이었다. 오늘계획도 1.5배이상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 그들의 신심과 열정에 넘친 대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가공 3작업반의 사랑, 파자호프선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밝은 햇빛이 비쳐드는 식료품가공현장이었다.

경공업혁명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합흥모방직공장에서— 김 진 명 적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합주장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공동사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기초식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목표를 높이 세우는데 기초하여 자체보장을 앞세우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이 진행하여 설비마다 만부하로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튼장작업반원들은 높은 책임성을 안고 기술공정과 표준작업법을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아랄라갈 노력

하여 생산을 부쩍 높이고있다. 기동작업반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으며 어린이식료작업반에서는 군안의 어린이들에게 사랑, 파자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맛있게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과 갖가지 당과류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기술혁신에서는 공무작업반원들이 일선에서고있다. 그들은 정선작업에서 이미 이룩한 기술혁

신성과 토대하여 새로운 무동력공선별기를 받아들여 기초식품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다. 또한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새로운 사랑성형기를 자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동전선에서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질 좋은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있다.

본사기자

일 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재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어 나가려는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회주의리상론!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속천군 약전농장을 돌아보며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드넓은 기계화포전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

속 천 군 약 전 농 장 을 돌아 보 고

꿈을 적시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그날의 높은 뜻을 한생애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은 진리로 새겨받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령도적지시를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일 불같은 마음을 안고 일터생활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고장 사람들이 사회주의농촌체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나가기로 마음먹은 때가 이룩아 자랑스러운가.

살로써 땅을 만들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높은 충실성과 애국심을 지니고 이 고장 사람들은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톱이 크게

행 복 의 보 금 자 리

수종이 좋은 수만그루의 나무와 꽃나무들이 풍치를 한껏 돋우고있는 곳마다 들어앉은 마을의 모습은 볼수록 아름답다. 쓰고살기 편리하게 건설된 살림집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자랑중에서 남다른것은 먹는물에 대한 자랑이다.

「해방전에는 마타리물마저도 겨우 먹었습다. 그런데 지금은 당의 은택으로 집집마다 맑은 수도물이 흐를 줄아지고있습니다.」 이 고장에서 대대로 살아온

수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 은정속에 이 고장에 없다면 샘물기를 찾아내게 되었고 짧은 기간에 농촌수도화가 훌륭히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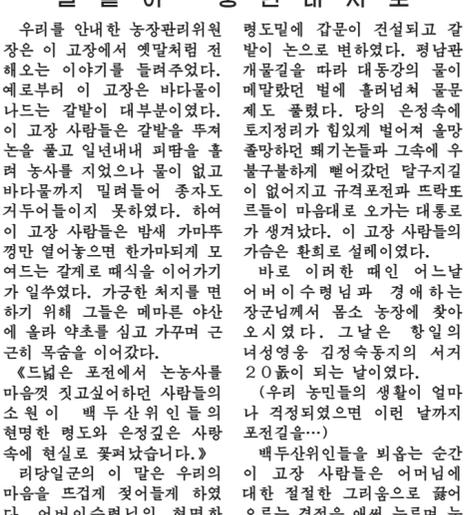
정령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 사는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이 고장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특색있는 설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과 농민정당소에서도 울려나오고있었다. 특히 농민정당소에서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 농사일을 적극 도와준 마을의 로인들까지 즐겁고도 행복한 정당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자랑 많은 목소리는 우리가 들리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온다. 해마다 사과, 배, 복숭아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이 쏟아지는 과수원, 물고기며 육식거리의 양어장...

해방전 갈대만 무성하여 야산에 약초나 심어 겨우 목숨을 연명해갔다고 하여 「약전」이라 불려온 이 땅, 시집오는 처녀들이 없어 《로후강감은 고장》으로 알려졌던 이 고장은 오늘날은 백두산위인들의 이끈 사랑속에 웃음 활짝 피어나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되었다. 돌아볼수록, 들어볼수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름이 깃들자 불빛밝은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있었다.

본사기자 정 영 철



공동사실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 정 일 적음



공동사실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 정 일 적음



공동사실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 정 일 적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무진장한 쇄돌에장광을 자랑하며 이 땅의 북녘에 준마마냥 거연히 솟아있는 철산봉, 바로 여기 철산봉에 새해의 첫아침부터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거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철산봉에 오르라, 강성대국의 아침이 보인다

올해 1월 1일 아침 10시, 뜻깊은 올해 총공격전의 포성인양 15만산대발파가 철산봉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새해 첫아침 화광을 번뜩이며 철산봉의 하늘가에 깔리어 울려 퍼진 대발파의 메아리! 그것은 4대선봉부문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나갈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의 호소로 신심드높이 화답하는 철산봉의 장엄한 진군가가 아니었던가.

무산의 광부들은 이렇게 올해의 첫걸음을 떼었다.

로전분광산의 발파장에서서 15만산대발파를 끝내기 바쁘게 1광구에서는 해제하였던 동력망을 다시 설치하고 대피시키었던 설비들을 생산현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40℃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속에서 2시간동안에 전수들을 세우고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전수꼭대기에 올라가 전기선을 늘인다는 것은 간단치 않았다. 그러나 전기수리직장, 동력직장의 기술자들은 2시간동안에 무조건 동력망을 형성하고 생산을 보정해야 한다는 결사판철의

철산봉의 발파소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린다

무산 광산련 합 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광부들

마다에서는 회전식착정기와 대형굴착기들의 드세한 동음 그칠새없고 마광기, 분쇄기, 자선기들의 동음 정다운 선풍장들과 대형원추형파쇄기설치를 위한 전투장에서는 창조와 기적의 열정 용양처럼 끓어번져 있었다.

레닌에 없는 추위로 북방의 산과 들은 얼어붙어도 철산봉은 열기를 뿜어올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

《강추위에 굴착기들과 회전식착정기들의 리드관들이 계속 터져나갑니다. 아무때도 작업장까지 이동하지않아 4시간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말에 1광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시간이 뭐요? 새해 첫날부터...무조건 2시간후에는 생산전투에 들어가야 하오.》

《그러면서 그는 올해가 어떤 해인가, 새해의 첫걸음부터 늦잠을 자게. 공무직장에서 며칠째 밤을 꼬박 새우며 예비부속품들을 마련하였으니 나를 미쁘고 하면서 그걸로 공무직장으로 달려갔다.》

《일마루부터 그들은 예비부속품들을 연속 교체하면서 끝내 2시간동안에 굴착기, 착정기들을 생산현장에 모두 배치하였다. 그런데 굴착기들이 한창

《다음교대를 위하여!》

로동계급의 참모습은 동지애와 집단주의에 있다. 올해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쭈켜들고 앞장에서 달리는 길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주자면 설비를 만가동

광석을 대형자동차들에 퍼담기 시작할 때 8월광구에서 뜻하지 않게 회전식착정기 114호의 감속기가 고장났다. 그 소식을 듣고 로전분광산의 광산장이 달려왔을 때 그곳에서는 감속기를 공무기지에 보내어 수리하려고 하였다. 광산장은 머리를 저었다.

《감속기를 공무기지에서 수리해보자면 최소한 이틀은 걸려야 한다. 그해 감속기수리를 이틀이 넘는 일내세로 파낸 강성대국의 아침을 우리 철산봉에서 맞이할수 있었는가?》

《그말을 남기고 광산장은 공무기지로 달려갔다. 그날 그들은 광산장이 지고온 부속품으로 끝내 3시간동안에 감속기를 수리하고 회전식착정기의 기체한 동음을 울리었다.》

《감속기들의 아침을 우리 기어이 철산봉에서 맞이하자! 이런 투지와 신심에 넘쳐 그들은 광석생산을 밀고나갔다. 이러한 그들의 위에는 언제나 초급당일군들이 있었다. 초급당일군들은 낮에는 분광기의 광구들과 직광들에 나가 전투원들의 정광력을 불러일으키고 밤에는 광산부의 집집을 돌며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심으로 풀어주었다.》

이러한 불같은 마음, 헌신과 사랑, 불굴의 투쟁으로 로전분광산에서 대고조의 발파소리, 회전식착정기, 대형굴착기의 동음을 기세차게 울려나갈 때 음광사업소, 박토콘베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광석, 박토수송전투로 낮에 밤을 이어나갔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이 정광생산에 펼쳐나선 2선광직장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새해의 첫아침부터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교대마다 만가동의 동음 높이 울리기 위한 사업에 열광을 총집중하였다. 특히 직광에서는 정광중산의 비결의 하나를 다음교대를 위하여 예비부속품도 마련해주고 정상설비를 인계해주는데서 찾아냈다.

《그날도 하루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한 2교대성원들은 기쁨속에 인계준비를 위하여 설비상태를 간지게 점검해 나갔다. 그러던 2교대장은 5호분쇄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광역이 조금씩 흘러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대도 인계하면 다음교대성원들이 그것을 피하지않고 적어도 1시간 30분을 잃을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할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교대장은 즉시 5호분쇄기를 세울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일부사람들이 광역이 조금씩 흘러나오는것을 새발의 피라고, 이제 며칠후면 정광설비를 2%이상 높일수 있는 새로운 사벌공정이 도입되었는데 그대도 5호분쇄기정비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하면서 그대도 인계하자고 하였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은 직장

대비약의 나래를 더 높이!

철산봉의 눈보라는 며칠째 계속 기승을 부리었다. 그러나 청년들격대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조립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도 눈보라속을 뚫고 아침 일찍이 철산봉에 오른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5호분쇄기앞에 도착한 당원들의 기세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은 직장

대비약의 나래를 더 높이!

철산봉의 눈보라는 며칠째 계속 기승을 부리었다. 그러나 청년들격대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조립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도 눈보라속을 뚫고 아침 일찍이 철산봉에 오른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5호분쇄기앞에 도착한 당원들의 기세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은 직장

대비약의 나래를 더 높이!

철산봉의 눈보라는 며칠째 계속 기승을 부리었다. 그러나 청년들격대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조립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도 눈보라속을 뚫고 아침 일찍이 철산봉에 오른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5호분쇄기앞에 도착한 당원들의 기세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은 직장

대비약의 나래를 더 높이!

철산봉의 눈보라는 며칠째 계속 기승을 부리었다. 그러나 청년들격대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조립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도 눈보라속을 뚫고 아침 일찍이 철산봉에 오른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5호분쇄기앞에 도착한 당원들의 기세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즐겁게 맛고 보낸 정월대보름명절

【평양 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이 민족적 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민족명절 정월대보름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었다.

평양의 만수대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와 사리원시 미곡리, 태원군 은흥리, 함주군 동봉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집집마다에서는 가족들과 이웃들

이 모여앉아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 등 민족음식들도 들고 여러가지 민속유희오락으로 흥을 돋구었다.

각지의 금강봉사당들도 끊임없이 찾는 손님들로 흥성이었다. 옥류관과 청류관에서는 평양 평면, 평고기국수와 같은 특색 있는 음식들로 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오곡밥과 산나물소리, 김치,

약밥, 떡국 등 특산음식봉사로 이채를 띤 해주의 육제과과 개성의 톨밀만, 사리원의 경양각을 비롯한 곳곳의 봉사당들에는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쳐났다.

어들이 깃들자 수도 평양과 원산을 비롯하여 방방곡곡에 불꽃장식과 불야경이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모두의 가슴에는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리라 새해 정초부터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길에 하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간직되어있었다. 《우리 당은 교원들을 믿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맡겼습니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앞에 새 세대들을 지책적으로 경비아 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은 직장

대비약의 나래를 더 높이!

철산봉의 눈보라는 며칠째 계속 기승을 부리었다. 그러나 청년들격대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조립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도 눈보라속을 뚫고 아침 일찍이 철산봉에 오른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5호분쇄기앞에 도착한 당원들의 기세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영웅 학교의 새 모습

김금순중학교 일군들과 교원들

학교가 지닌 새 이름에 호기심이 통하여 찾아왔다는 우리의 이야기에 교장 리성철동무는 손을 흔들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기술을 돌파하고 앞 당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교육의 현대화, 정교수용다매체전집물을 만들어

《이 시대가 초가 칠만군민의 심장을 울리던 지난해 어느날 그를 비롯한 이곳 교원들의 마음도 새차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새로운 중학교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높은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길러 줄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 교원들이 그 든든한 밑천이 되고 초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학교에서는 지난 시기부터 여러 과목의 교수용다매체전집물을 만들어 수업에 적극 리용하고있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즐거운 민속놀이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중구역 중성동에서- 신 승혁 찍음

2010년 아시아축구련맹 도전자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남자축구팀이 우승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이 승리의 소식을 편이 안아와 온 나라를 기쁘게 하고있다.

《축구가 높이 솟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내줄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남자축구팀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카타르에서 진행된 4개국 축구경기대회에서 달리, 카타르팀들을 각각 1:0으로 격파하고 단연 우승한데 이어 2010년 아시아축구련맹 도전자컵경기대회에서도 영예의

27일까지 스페인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2008년 대회때 3위권에 속했던 우리 나라와 인디아, 파키스탄팀들과 예선경기를 통하여 올라온 만파, 푸르케메니스팀, 키르키즈스탄, 스페인, 방글라데시팀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축구팀의 책임감독 조동성동무와 선수들은 당이 안겨준 사상적인, 투지적인, 속도전, 기술적인 주제적인 경기전법으로 신심드높이 경기를 운영하여 조별리그에서 서부부 우승한데 이어 2010년 아시아축구련맹 도전자컵경기대회에서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설비를 그대로 인계한다면 정광설비를 아무리 높여도 정광생산은 높일수 없으며 김철에 뿜어놓은 정광을 더 많이 보내줄수 없다. 더우기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마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진시대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교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5호분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2교대성원들은 깊은 자책속에 반항들의 광역도 새겨 없게 분쇄기를 정비하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데 그대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겠소. 눈보라도 새친대...》 《격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셨을때 때에 비하면, 오늘의 눈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가슴가득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